



: 2026 2 23 7:42



예덕나무 / *Mallotus japonicus* (L.f.) M II.Arg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예덕나무속 |
| 과국명 | 대극과 |
| 과명 | Euphorbi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대극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일본, 대만, 우리나라 충청남도, 전라남북도, 경상남도, 제주도에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, 대만; 충청남도, 전라남북도, 경상남도, 제주도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소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10m.</p> <p>꽃색 : 노란색</p> <p>개화기 : 6월, 7월</p> <p>잎은 어긋나기하며 난상 원형이고 점첨두, 넓은 예형이며 심장저와 비슷한 모양이다. 표면은 적색 샘털이 있고, 뒷면은 황갈색 선점이 있다.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3개로 약간 갈라지며 매우 긴 잎자루가 있다.</p> <p>원뿔모양꽃차례는 가지 끝에 달린다. 꽃은 암수딴그루이며 6월 말~7월 중순에 핀다. 수꽃에 꽃받침은 3~4갈래로 갈라지고, 50~80개의 수술이 있다. 암꽃은 각 포에 1개씩 달린다.</p> <p>열매는 삭과로 삼각상 원형이고, 황갈색 샘과 별모양 털이 빽빽하다. 씨는 어두운 갈색이며 약간 둥글다. 뚜렷하지 않은 돌기가 있으며 8월 중순~10월 초에 성숙한다.</p> <p>줄기는 높이 10m에 달한다. 어릴 때는 별모양의 털로 덮여 있고 붉은빛이 돌지만 점차 회백색이 된다. 가지는 굵고 나무껍질은 회백색이다.</p> <p>낮은 지대의 약간 습한 곳에서 자라며 추위에 약하여 중부지방에서는 바깥에서 겨울나기가 불가능하다. 그늘진 곳에서 보다는 별이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. 건조에 강하여 척박한 땅에서 무리를 이루며 바닷가에서도 양호하게 자라며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이다.</p> <p>가을에 씨를 채취하여 물어 저장해놨다가, 이듬해 봄에 씨를 뿌려 번식시킨다.</p> |